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 February 2021
Vol.350

COVER STORY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COLUMN

봄의 첫날, 설날

골목길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빈빈 문화원



피아니스트 임동민, 임동혁

2021

BCMF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
Busan Classic Music Festival

3. 2 TUE - 3. 17 WED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공존·시간을 열다

2021
3월

오충근 예술감독

- 2(화)** 오후 7시 30분 금빛누리홀
조성현·한수진 & BCMF오케스트라
조성현(Fl.) 한수진(Vn.)
BCMF오케스트라(리더 임재홍)
- 5(금)** 오후 7시 30분 은빛샘홀
하프시스 / BCMF목관5중주
황세희, 황리하(Hp.) /
조성현(Fl.) 노지연(Ob.) 백동훈(Cl.) 박준태(Bn.) 주홍진(Hn.)
- 6(토)** 오후 5시 은빛샘홀
4첼로·송영훈과 친구들
송영훈,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Vc.)
- 12(금)** 오후 7시 30분 은빛샘홀
김재원 & 윤아인 듀오
김재원(Vn.) 윤아인(Pf.)
- 13(토)** 오후 5시 은빛샘홀
부산피아노트리오 / 스트링아데소
권 준(Pf.) 백재진(Vn.) 이일세(Vc.) /
김주영, 이종은(Vn.) 김 규(Va.) 이호찬, 김민승(Vc.)
- 16(화)** 오후 7시 30분 은빛샘홀
EOPO양상블
백동훈(Cl.) 임재홍, 김재원(Vn.) 이승원(Va.) 심준호(Vc.) /
윤아인(Pf.) 김재원(Vn.) 이승원(Va.) 심준호(Vc.) 조용우(DB.)
- 17(수)** 오후 7시 30분 금빛누리홀
심준호 & 부산신포니에타
심준호(Vc.) & 부산신포니에타(리더 김영희)

주최 | 금정문화회관 9CMF 부산클래식음악제조직위원회 부산일보사 부산MBC 부산CBS

주관 | HalmaCine Tokki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금정문화재단

Friendship Supporters |

Dongsung SHINSEGAE 부경대학교 BNK 부산은행 hyungji 패션그룹형지 동성모터스 (주) 송원타운 송원우선 (주) 와인테크놀로지

입장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예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공연문의 | 051.519.5661~4, 080.519.2021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UN CHOI, ARTISTIC DIRECTOR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021. **2. 18** THU 7:30 PM

부산시민회관 중극장 (거리두기 좌석제)

Main Theater, Busan Citizen's Hall

비제 · 「카르멘」 서곡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1번 中 제1악장

훔멜 · 트럼펫 협주곡 中 제1악장

크레스톤 · 오케스트라와 마림바를 위한 소협주곡 中 제3악장

이투랄데 · 페퀘냐 차르다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민형

플루트 이윤후

트럼펫 백도영

마림바 서보준

색소폰 이현진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자유석)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아티스트 지원 프로젝트 비상「飛上」

ARTIST START

2021 미술대학 예비작가 지원전시

02.05.Fri
-02.21.Sun
11AM-7PM / 02.12 설 당일 휴관

주최/주관  **KT&G 상상마당 부산**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NK 부산은행**  **부산화랑협회** **ART BUSAN**

문의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0-0893~4 부산시민회관 051-630-5235 BNK 부산은행 갤러리 051-246-8975

참여대학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전시 장소

KT&G 상상마당 부산
부산시민회관

BNK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CONTENTS

0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February 2021 Vol.350

2021년 2월호 통권 35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6 Cover Story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10 Column

봄의 첫날, 설날

12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박물관 여행 ①

쿠르베의 베를리오즈를 만나다
- 파리 오르세 미술관

16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함께 어울려 품격있게 놀아보자
빈빈문화원

18 Academy Class

프랑스 소설의 사랑 이야기

22 Preview

24 Issue

2021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

26 Review

28 Program Guide

33 New Book

34 김주임의 24시

공연장의 플레이메이커
전략기획팀 김상윤 주임

36 Column

극장장의 손편지 ②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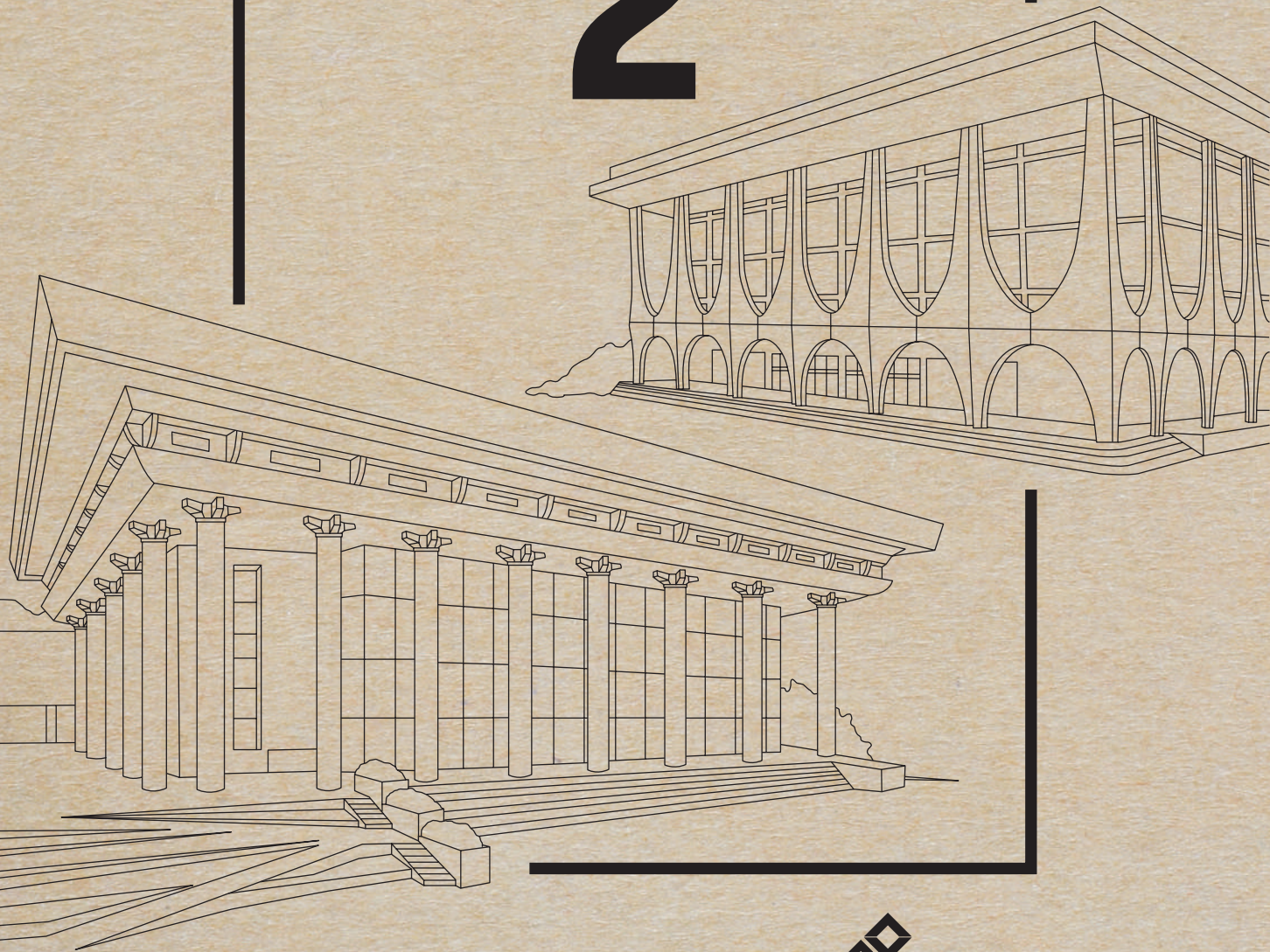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1 FEBRUARY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유료회원 선예매 시행 (일부 공연 제외)

SUN	MON	TUE	WED
	1	2	3
7 부산여자대학교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 '춤, 월월 날다' 18:00 대 초대/부산여자대학교(850-3261) 고블린파티 '옛날 옛적에' 16:00 중 고블린파티(010-8843-0248)	8	9	10
14	15	16	17
21 그라베앙상블 창단연주회 18:00 챔 전석 1만원/그라베앙상블(010-9340-9521) 코리아음악콩쿠르 09:00 소 ㈜한아방송(010-2548-8038)	22	23	24
28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소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3/1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소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무인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문화공간 2021 미술대학 ARTI START ■ 2월 5일(금) ■ 무료 ■ 부산시민회관 ※ KT&G상상 부산청년문화공간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3	4	5	6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19:00 참 초대/김해옥(010-3859-9822)
10	11	12	13
17	18	19	2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대 전석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참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경향음악공쿠르 09:00 소 경향아트(895-7107)
24	25	26	27
	2020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부산솔리스트앙상블(010-7315-735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19:30 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17:00 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 동백대상국제음악공쿠르 09:00 소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작가 예비작가 지원전시 2월 21일(일) 관 630-5235 미당 부산, BNK부산은행 갤러리, 간 청년작당소 동시 개최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2021. 3. 6 토 오후 5:00

입장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인터파크(1544-1555)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공동 3위로 입상하며,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던 임동민, 임동혁 형제. 그들의 역사적인 듀오 무대가 3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릴 적부터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데뷔 후 지난 20여 년 간 두 형제가 한 무대에 선 것은 단 세 차례(1997년, 2006년, 2014년)뿐. 이 때도 독주와 협주곡을 각자 연주했을 뿐 듀오연주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쇼팽 콩쿠르 공동 3위 입상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이자 형제 입상자로 주목

강인하고 따뜻한 연주의 임동민과 화려한 색채감으로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임동혁. 10대 때 이미 피아노 영재로 유명했던 두 형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지난 1996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콩쿠르에서 형인 임동민이 1위, 동생 임동혁이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이후 굵직한 국제 콩쿠르에서 경쟁하듯 입상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임동민은 비오티 국제콩쿠르 3위(2000년), 부조니 콩쿠르 3위(200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2002년), 임동혁은 롱티보 콩쿠르 우승(2001년)을 비롯해 부조니 콩쿠르 5위(2000년), 쾨넬리자 베스 콩쿠르 3위(2003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4위(2007년)에 잇따라 입상하며 차세대 주자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2005년, 세계적인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두 형제가 2위 없는 공동 3위에 오른 것으로, 1927년 콩쿠르가 시작된 이래 78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인 입상자를 내지 못했던 쇼팽 콩쿠르에서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이자 최초의 형제 입상자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당시 19명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두 형제의 점수 합산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다. 쇼팽 콩쿠르 이후 두 형제는 늘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수식

어가 따라다녔으며 이후 나란히 쇼팽 앨범을 출판하기도 했다. 주로 낭만 쪽 레퍼토리를 선보인 것도 비슷하며, 둘 다 좋아하는 작곡가로 쇼팽과 슈베르트를 꼽는 것도 닮았다. 이렇듯 닮은 듯 다른 네 살 차이의 두 형제는 어느덧 젊은 거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아티스트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명성을 굳힌 임동민은 지난 2008년부터는 음악활동과 더불어 계명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소니 뮤직과 첫 앨범인 베토벤 소나타를 녹음했으며, 2011년 쇼팽 앨범으로 2집을 발매한 데 이어 2019년, 쇼팽과 슈만의 작품으로 3집을 발매하며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독주 무대 위주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형 임동민과 달리 임동혁은 유럽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독주 및 협연, 실내악 무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임동혁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금까지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는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EMI클래식에서 출판한 그의 데뷔음반은 세계적 권위의 '황금 디아파종상'을 수상했으며 2집 음반 쇼팽 리사이틀은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하며 평론가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정규 5집이자 최초의 협주곡 녹음인 라흐마니노프 앨범을 워너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는데, 이 음반에는 아르헤리치와의 듀오곡 '교향적 무곡'이 수록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 무대 두각 음악활동과 더불어 후학 양성에 매진

피아니스트 임동민은 다른 천재 피아니스트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인 9살에 피아노를 시작했다. 뛰어난 재능과 피아노에 대한 열정으로 피아노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후, 삼익피아노 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중 러시아로 유학,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입학한 임동민은 모스크바 제1회 국제

Lim Dong Hyeok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SangWook Lee

영 쇼팽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임동민은 2002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첫세가 심하기로 유명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한국인 입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는 정명훈과 백혜선에 이어 세 번째였다. 2년 후에는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이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의 프리뷰라고 불릴만큼 쇼팽 콩쿠르에 참가 예정인 많은 인재들이 참여하는 경연의 장으로, 이를 계기로 세계 언론으로부터 기대주로 큰 주목을 받게 됐다. 2005년 동생 임동혁과 함께 쇼팽 콩쿠르 수상으로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임동민은 이후 영국 위그모어홀, 프랑스 샬 플레엘,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홀, 일본 오사카 심포니홀, 미국 스타인웨이홀 등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공연장에서 연주했으며,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 솔로박 필하모닉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임동민은 지난 2019년, 무려 8년 만에 앨범 'Chopin&Schumann'을 발매했으며, 그 해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고양, 대구, 인천, 통영 등에서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계 3대 콩쿠르 석권 클래식계 팬덤 일으킨 최초 연주자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형인 임동민을 따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 10살이던 1994년 온 가족이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다. 2001년 12월,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과 더불어 5개 특별상을 휩쓸었던 임동혁은 이 콩쿠르 수상을 계기로 국내에 대규모 팬덤이 형성되면서 클래식 공연장에 최초로 '오빠 부대'를 등장시킨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했으나 심사위원들의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몰고 왔다. 2005년 쇼팽 콩쿠르 수상에 이어 2007년에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쇼팽,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임동혁은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봤던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16세의 나이에 EMI클래식과 레코딩 계약을 맺었다. 데뷔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상'을 수상하는 등 이후 발매된 음반들 역시 매년 유럽의 권위있는 음반지로부터 놀라운 만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현재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센터, 런던 위그모어홀, 파리 샬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으며, 샤를 뒤투아가 지휘하는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베크 지휘의 BBC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데뷔 이후 첫 듀오 무대에 큰 기대 러시아 정통 피아니시즘을 계승한 레퍼토리 선사

이번 무대는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데뷔 이후 처음 선보이는 듀오 무대인 만큼 형제만의 호흡이 어떻게 빛을 발할지 벌써부터 큰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슈베르트 음악 해석에 뛰어나고 러시아 정통 피아니시즘을 계승한 만큼 이번 무대의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이번 무대에서 임동민, 임동혁은 1부 솔로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환상곡'과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들려준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드라마 '밀애'의 수록곡으로 대중에게도 친숙한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은 슈베르트가 자신의 제자이자 짝사랑했던 에스테하치에게 헌정했던 작품으로, 그의 연탄곡 중 제일 유명하다. 이어서 연주되는 라흐마니노프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은 형제 모두 러시아에서 유학했던 만큼 러시아인 피아니즘을 깊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혁은 러시아 스타일에 대해 "둘러말하지 않고, 진솔하며, 뜨겁고, 넓은 것"이라고 정의하며 특히 라흐마니노프에서 도드라진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연주되는 곡 역시 그런 라흐마니노프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봄의 첫날, 설날

동길산 본지 편집위원장·시인



지금은 정월. 한파가 매섭다. 매섭기도 매섭고 길기도 길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검색해 오늘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그것부터 알아본다. 아침은 물론이고 오후 내내 영하인 날이 연일 이어진다.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려 하루하루 고단한 정월이다.

고단하기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마당 감나무는 이파리를 죄다 떨구었다. 매섭고 긴 한파가 들이닥치기 전만 해도 몇 잎이나 마 달렸던 나무였다. 잎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남은 잎을 헤아리며 하루를 열었고 나부끼는 잎을 보며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가늠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무는 얼마나 추울까. 손바닥 대면 한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추위에 얼어 갈라터진 손등처럼 갈라터진 나무껍질은 콧날 얼얼하게 한다. 잘 돌보지 않은 내 잘못인 것 같아 양팔 벌려 안아도 보지만 그때뿐이다. 전신에 전해지는 한기는 마음만 쓰리게 한다.

새는 종종 찾는 눈치다. 따먹을 감이 달렸을 때보단 덜하겠지만, 자기를 숨길 잎이 달렸을 때보단 덜하겠지만 아침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인다. 나뭇가지에 발바닥을 문대고 부리를 비비면서 잎 다 떨구고 허전해진 나무의 마음을 다독이는 눈치다.

어쩌면 새의 눈치가 그만큼 빠르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늘 이 모양이지 않은 걸 텃새가 왜 모를까. 부근에서 일가를 이룬 새는 잎을 피우고 홍시 주렁주렁 매달 그때 덜 미안하려고 아침에도 나무를 찾고 저녁에도 나무를 찾는다.

나도 그걸 안다. 때가 되면 나무가 잎을 피우고 홍시 주렁주렁 매달리란 걸. 그래서 아주 가끔이지만 양팔 벌려 안아주고 손등 때를 밀 듯 갈라터진 껍질을 벗겨낸다. 묵은 껍질을 벗겨내면 나무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마을 어른에게 듣고선 한동안은 이 일에 재미를 붙이기도 했다.

때가 되면 나무는 잎을 피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들 알기에 나무가 잎을 죄다 떨구었다고 베어내지 않으며 뿌리째 파내서 토양 좋은 곳으로 옮겨 심지 않는다. 나무에 눈총도 주지 않을뿐더러 주기는커녕 나무가 애를 쓸까 봐 일부러 못 본 척한다. 그것만 봐도 이 세상 사람은 다 선하다.

사람은 다 선한데 코로나는 참 못됐다. 정월 한파처럼 매섭고 질기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하 몇 도인지 검색하듯 확진자가 몇 명인지 검색한다. 날씨는 대개 오후가 되면 엔간하면 풀리

지만 코로나는 오후가 돼도 여간해선 줄어들지 않는다. 참 못됐다.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때가 되면 나무가 스스로 잎 피우고 열매 맺듯 때가 되면 코로나 스스로 시들고 스스로 떨군다는 걸. 잎은 피는지도 모르게 피고 열매는 맺는지도 모르게 맺듯 코로나 또한 시드는지도 모르게 시들고 떨구는지도 모르게 떨군다는 걸.

지금은 여전히 정월. 한파는 여전히 매섭고 길다. 하루 벌어 하루 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돈을 벌거나 모으는 데는 아무래도 무뎠던 우리 예술인에게겐 내남없이 고단한 날의 연속이다. 예술만으론 밥을 먹지 못하니 투잡에 나선 예인은 왜 없을까.

아무리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겨울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봄은 가까이 와 있단 걸. 예술 하지 않는 이도 그걸 아는 데 누구보다 감각이 섬세한 예술인이 그걸 모를까. 새해 첫 달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곧 2월이고 설날이다. 옛사람은 설날을 봄의 첫날로 봤다. 곧 봄이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쿠르베의 베를리오즈를 만나다

이장직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총괄연구원



19~20세기 인상주의 미술의 요람

파리 센 강변에 자리잡은 오르세 미술관은 오르세 궁이 있던 자리다. 파리 코뮌 때 함락되고 나서 1900년 오를레앙행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 들어섰다(지금은 오를레앙으로 가려면 오스탈리츠 역에서 타야 한다). 1939년 기차의 기적 소리가 멈춘 뒤에는 우체국, 영화 세트장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 건물을 부수고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무산되었다. 포피두 대통령은 1977년 파리 도심에 현대미술센터(포피두 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이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1986년 12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는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르세 미술관은 1814년부터 1914년까지 프랑스 미술을 중점적으로 소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루브르 박물관이

1 파리 오르세 미술관

2 쿠르베, 베를리오즈 초상화,
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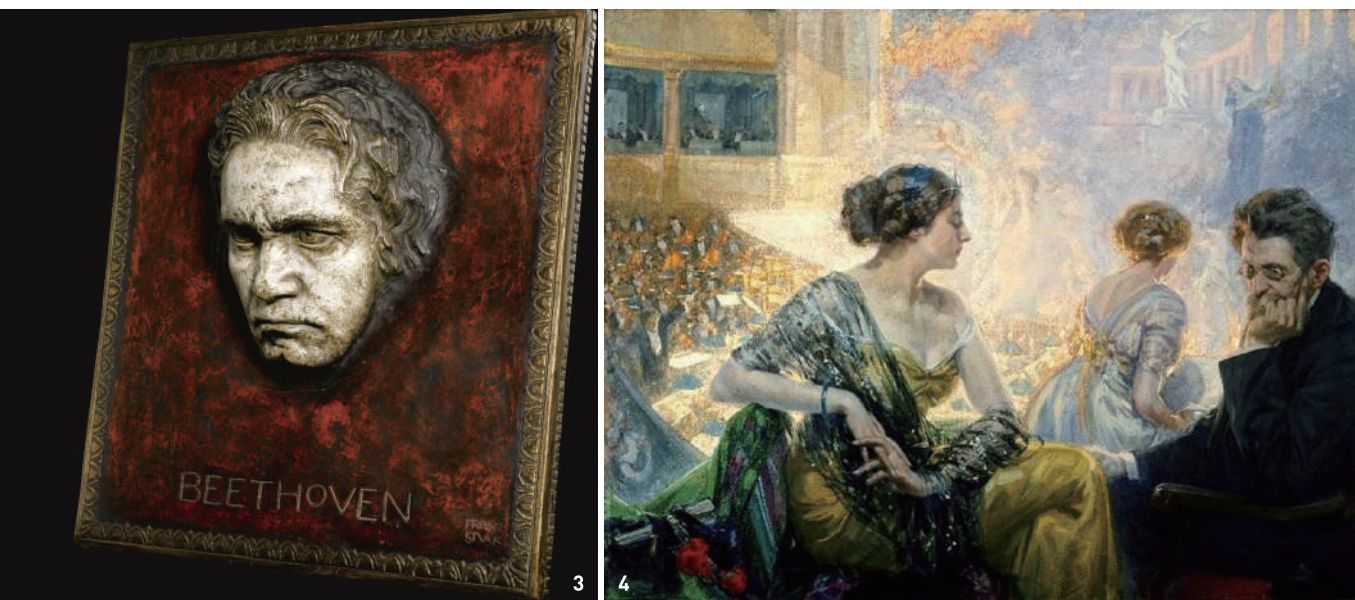
고대,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에 집중하고 퐁피두 센터가 현대미술의 요람이라면 19세기초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회화와 조각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100년에 불과한 시기이지만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고흐, 마네, 르누아르, 드가 등의 인상과 회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루브르 다음 가는 관광 명소다. 작품마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가령 음악이라는 주제에만 집중해 관련 그림을 돌아보려면 한나절 코스로 충분하다.

베를리오즈가 거절한 쿠르베의 초상화

대표작은 쿠르베의 ‘베를리오즈 초상화’(1850)다. 완성 직후 초상화의 주인공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려던 화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쿠르베가 소장하고 있다가 1850년 살롱전에 이어 1889년 파리 엑스포에 출품했다. 프랑스 정부에서 사들인 후 루브르를 거쳐 오르세에 등지를 텄다. 당시 45세의 베를리오즈는 절친인 작가 프랑시스 베이의 소개로 쿠르베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쿠르베는 자신이 존경하는 빅토르 위고의 친구이자 당시 프랑스 최고 작곡가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그림을 그리면서 어설픈 민요를 흥얼거렸다. 심지어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베를리오즈에게 작곡의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베를리오즈가 초상화를 거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모름지기 초상화라면 실물보다 더 멋있게는 못하더라도 그림 속 주인공의 장점을 십분 살려야 하는데 쿠르베는 잠시 동안의 대면을 통해 자신이 애써 감추려했던 암울한 내면을 가감 없이 그려냈기 때문이다. 쿠르베는 같은 포즈로 두 점을 그렸는데 오슬로 국립미술관 버전은 더욱 멜랑콜릭하다. 5년 후 바이마르에서 리하르트 라우케르트가 그려준 초상화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1849년 말 베를리오즈는 파리에서 작곡가 겸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교향악 연주회 시리즈를 시작했지만 재정난으로 2년 만에 접어야 했다. 파리음악원 도서관 사서가 그가 얻었던 유일한 ‘정규직’이었다. 어쨌든 사실주의에 입각한 쿠르베의 그림은 베를리오즈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가리잡았다.





3 프란츠 폰 스투크, 베토벤 초상화, 1900 4 올리세 카푸토, 신포니아, 1914

부조로 되살아난 베토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독일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인 프란츠 폰 스투크의 ‘베토벤’(1900)이다. 스투크는 뮌헨에 직접 설계한 저택에 음악실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걸어들 목적으로 프란츠 클라인(1779-1840)이 1812년에 만든 베토벤의 라이프마스크를 모델로 초상화를 만들었다. 베토벤의 친구인 피아니스트 겸 피아노 제조업자 요한 안드레아스 슈트라이허(1761-1833)가 실물에 가까운 베토벤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친구의 얼굴에 회반죽을 씌우게 한 것이다. 스투크가 그려낸 베토벤은 눈을 부릅뜨고 보는 이에게 최면을 거는 듯하다. 부조라는 측면에서는 조각이지만 액자 속에 넣었다는 점에서는 회화다. 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준다. 빌라 스투크는 오늘날 스투크 박물관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건물과 벽면을 가득 메운 그림이나 조각은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까지 스투크의 작품이다. 음악실에는 바흐, 헨델, 글루크, 하이든, 슈베르트, 베버, 모차르트, 베토벤의 이름이 새겨져있는데 모두 독일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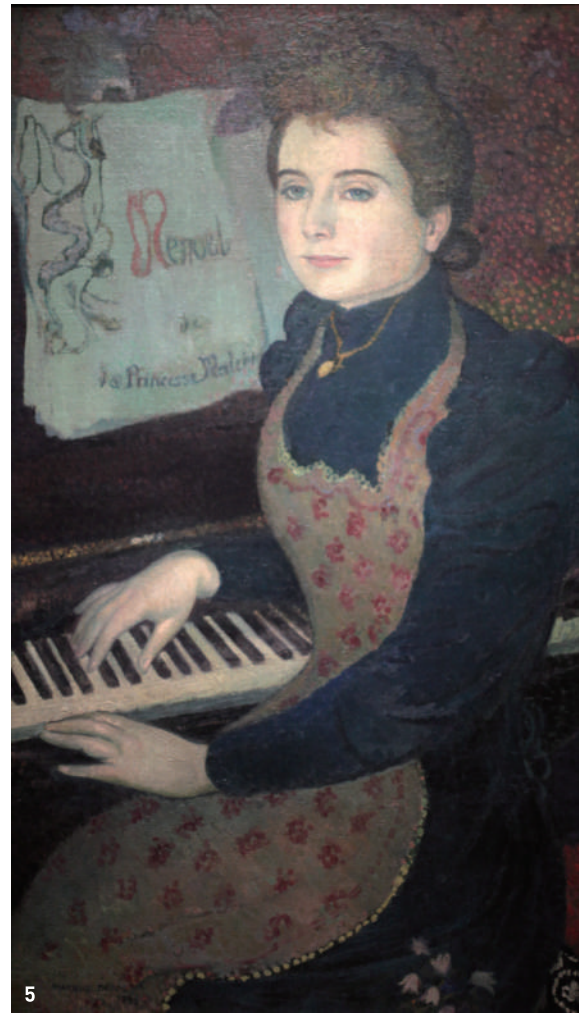
상상력으로 그려낸 무대

올리세 카푸토(1872-1948)는 나폴리 태생으로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중인 ‘신포니아’(1914)는 오페라 극장에서 서곡이 연주되는 순간 두 남녀가 시선을 달리하면서 음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아직 무대막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를 볼 필요도 없다. 그림에서는 무대 위에 그리스 신전을 배경으로 춤추는 무희들이 있는데 이것은 음악을 듣는 두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기악음악을 들으면서 시각적인 풍경을 떠올리는 것은 카푸토 자신의 성향이기도 하다. 1915년 3월 30일 미술평론가 비토리오 피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을 긋는 동작이나 지휘자의 제스처에서 보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적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시각적인 연상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 적어도 고차원적인 음악 감상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시각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 발휘된 것이니만큼 나무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문학, 음악, 회화의 완벽한 결합

모리스 드니가 1891년에 완성한 ‘피아노 앞의 마르테’에 나오는 주인공은 화가의 약혼녀다.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는 화가와 약혼녀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품이다. 피아노 앞의 여성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이지만 피아노 위에 실제 악보를 놓아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만큼 그림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얘기다. ‘말렌 백작부인의 미뉴에트’인데 1891년 피에르 헤르망이 작곡했으나 악보는 남아있지 않다. ‘말렌 백작부인’은 모리스 메테레르니히의 희곡이다. 말렌 백작부인은 살해되고 연인 잘마르 백작이 새 약혼녀를 죽인 다음 자결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드니와 마르테가 즐겨 보았던 연극이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한참 열애 중인 두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드니는 일기에서 새벽 두 시까지 이 희곡을 읽고 또 읽는 마르테가 안쓰럽다는 얘기까지 남겼다. ‘피아노 앞의 마르테’는 한마디로 말해 문학, 음악, 회화의 완벽한 결합이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아도 악보의 표지 그림, 마르테의 옷주름과 앞치마의 꽃무늬가 리드미컬한 울동을 자아낸다.

오르세 미술관에는 이밖에도 마네 ‘피아노 앞의 마네 부인’, 르누아르 ‘피아노 앞의 두 소녀’, 르누아르 ‘바그너 초상화’, 앙리 판탱라투르 ‘피아노 곁에서’, 드가 ‘파리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 등 음악을 소재로 한 회화를 소장 중이다.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의 단면 축소 모형도 볼 수 있다.



5 모리스 드니, 말렌 백작부인의 미뉴에트
(또는 피아노 앞의 마르테), 1891

2021년 2월호부터는 미술사와 음악사가 만나는 특별한 인문학 시리즈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박물관 여행’을 연재합니다.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중인, 음악에 영감을 받은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작곡가와 화가들의 예술적 교류를 살펴봅니다.

필자 이장직은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를 거쳐 같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음악 이론과 음악학을 공부했으며,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일보에서 국내 최초의 음악전문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음악 평론 부문에서 입선하였고 1986년 객석예술평론상, 1990년 서울예술평론상, 2002년 한국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총괄연구원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음악의 사회사>, <70일간의 음악 여행>을 비롯해 <음악과 사회>, <대중화 시대의 음악> 등 평론집, 클래식 입문서 <레인보우 클래식> 등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품격있게 놀아보자



박나무 자유기고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 일터를 꾸미고 싶었다. 일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좋겠으나, 일이 생활 같고 생활이 일 같은 그런 삶도 괜찮지 않을까. 일이 힘들면 즉시 퇴근하고, 일이 밀리면 바로 출근하는 자유분방한 삶이 도래하려면 아득하지만..., 남천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빈빈문화원을 보면서 “앗! 내가 꿈꾸던 곳”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빈빈문화원의 대문은 제주의 정남처럼 막대기를 걸쳐놓았다. 그것이 내려져 있으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고, 걸쳐 있으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겹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라 막대기를 잠시 걸쳐놓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낀 채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시를 쓰고 함께 어우러져 발표하는 일은 빈빈문화원의 중요한 사업이다. 처음에는 서로 말 걸기도 어려워하던 이들이 이젠 미루나무문학회를 만들고, 시와 수필을 쓰고 작품집을 만들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희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을뿐이라고.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약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건강하게 어우러져 이겨내는 것이 좋으니,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라는 것. 빈빈문화원에서 함께 어우러진 이들은 이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이젠 그들의 작품에 음악을 얹어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



고 발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작업에는 참스기획이라는 전문음악인단체의 도움이 함께였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간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강연과 글쓰기 수업에도 열심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51:49 어떤 생각을 2% 더 먹느냐에 따라서 있는 곳이 달라질 뿐,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노인들의 지나온 삶을 구술로 엮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는 빈빈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텐데, 김종희 대표는 늘 여유있는 표정과 몸짓이다. 언제 움직이는 걸까? 의아할 정도. 정신장애인이거나 교도소수용자, 노인 등 주로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적잖은 후원자들이 마음을 보태고 네트워킹을 제공해주어 고마운 마음이라고...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과 과학, 미술과 음악, 남자와 여자, 종교와 비종교,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우러질 때 공존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김종희 대표는 미학미술사학자로 불교철학과 관련한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이름난 강사로 여러 대학과 도서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줄을 잇는다. 그렇게 받은 강사료 중 50%는 해당 지역에서 꼭 소비를 한다는 것이 그의 작은 소신이다. 나머지 50%는 빈빈문화원을 매입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았고, 또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며, 앞

골목의 성장이 곧 사람의 성장이고 그것이 문화의 성장을 이룬다는 빈빈문화원



빈빈문화원은 지난 10년간은 주로 점잖게 공부하는 공간이었다면 이후 10년간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일상의 예술화, 예술의 일상화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으로의 큰 공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그의 강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빈빈문화원은 김종희 대표의 오랜 노고가 빚어낸 과실 이면서 또 형태를 허물고 변화를 시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1996년 4월 김종희교육아카데미로 문을 열어 지난 2010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온 지 10년이 지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빈빈문화원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주로 점잖게 공부하는 공간이었다면 이후 10년간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품격있게 놀며 일상의 예술화, 예술의 일상화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목공예가 박태홍 작가의 주도로 3월부터 두 달간의 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의 공간도 훌륭한데 이걸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김 대표의 발상도 놀랍고, 그만큼 확 바뀐 면모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멋진 공간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주방도 만들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 권대근 작가를 초대해 문학과 음악이 콜라보된 에세이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세학 작가를 초대해 그림읽기를 함께 할 계획이다. 골목의 성장이 곧 사람의 성장이고 그것이 문화의 성장을 이룬다는 빈빈문화원의 생각이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망해본다.

■문의 : 빈빈문화원 627-2063, blog.naver.com/vin0203

프랑스 소설의 사랑 이야기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
플로베르와 모파상의 소설과 사랑

함정임 소설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모든 소설은 사랑 이야기이다.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다를 뿐. 한 사람의 인생살이를 일대 사건으로 볼 때, 대략 다섯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어나고, 죽고, 먹고, 자고, 그리고 사랑.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아니 영원히 소설의 유혹, 소설의 초대를 받는 사건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소설을 낳고, 소설이 사랑을 낳는다. 프랑스 소설에는 유독 사랑 이야기가 많다. 왜 그럴까. 프랑스 소설에 거는 독자들의 기대가 유독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랑? 거대한 회상으로 생의 한 순간 한 장면을 추적하면서 마법처럼 생(生)을 완성해가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길고 긴 장편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본질은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사랑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채로운 정념(情念)의 드라마이다. 소뮈르라고 하는 프랑스 중세 고성(城) 마을의 외제니라는 여자의 소소하고 지난한 일생을 그린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는 평생 단 한 번 품었던 사랑 이야기로 소설의 제목과 함께 주인공이 되었다. 뿐인가. 프로방스의 작고 매혹적인 도시 아를르의 농가(農家)의 아들 장이라는 청년은 장터에서 본 집시 여인을 가슴에 품었다가 치명적인 사랑의 바이러스처럼 어찌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야기를 작가 알퐁스 도데는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렸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직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도발적으로 시작하는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은 단 한 순간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를 향한 집착으로 사랑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끝의 여운까지도 소진시켜버리는 지독한 열애(熱愛)의 흔적을 추적하는 이야기이다. 소설 덕분에,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매번 지금 이곳에 태어나거나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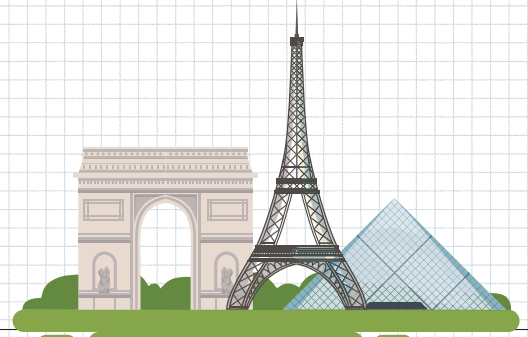
도착하는 인물들이고, 독자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불멸의 이름들이다. 이들을 따라, 프랑스 사람들의 감성, 사랑에 대한 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소설로 만나는 일은 설렘과 황홀의 여정이다.

파리 북쪽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으로 밀발 평원과 구릉으로 이루어진 곡창과 낙농 지대이다. 이 노르망디를 때로는 구불구불, 때로는 유유히 흘러가는 강이 파리 도심을 관통해 흘러가는 센 강이다. 이 센 강은 노르망디의 주도 루앙을 거쳐 영불해협을 옹플뢰르, 트루빌과 도빌, 르 아브르 앞 바다에 이르는데, 강줄기 따라 인상파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림 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설이 씌어졌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의 삶과 예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소설들이 이곳을 무대로 또는 이곳에서 잉태되었는데,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이곳을 소설로 쓴 대표적인 소설가로 귀스타브 플로베르와 기 드 모파상이 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는 프랑스 소설사를 뛰어넘어 세계 현대소설사의 맨 앞에 위치하는 걸작 소설이다. 루앙 태생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문학을 가슴에 품은 플로베르가 세속적인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소설 쓰기에 투신해서 써낸 소설로 그의 고향 루앙과 루앙 근교 시골 마을들을 무대로 시골 의사 샤를르 보바리 씨의 아내 엠마 보바리의 욕망과 사랑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마담, 곧 부인을 제목으로 삼은 동서양 소설들(<클레브 공작부인>, <댈러웨이 부인>, <채털리 부인의 사랑>, <자유 부인> 등) 중 하나인데, 통속적인 파국의 부적절한 사랑 이야기로 소설의 위치를 예술의 경

지로 끌어올린 문제작이다. <마담 보바리>로 현대 소설의 최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플로베르가 루앙과 그 인근 시골 마을을 무대로 엠마의 이야기를 썼다면, 그의 <감정 교육>은 파리로 확장하여, 프레데릭 모로라는 청년의 첫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감정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조이스와 카프카, 보르헤스와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소설가들이 기리고 숭배하던 플로베르가 말년에 쓴 소박한 사랑 이야기가 <순박한 마음>이다. 순박한 마음이란 곧 단순한 마음, 펠리시테라는 어느 귀부인집의 가정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충직한 마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플로베르의 외가, 곧 어머니의 태생지인 폰레베크 마을을 무대로 펼쳐지는데, 소설의 주인공이 귀부인(<클레브 공작부인>, <골짜기의 백합>, <안나 카레니나>, <댈러웨이 부인>)과 같은 위치에서 펠리시테라는 가정부, 하녀로 이행하는 의미심장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 드 모파상은 플로베르와 같이 노르망디 출신으로 일찍이 한국 독자에게 <여자의 일생>을 쓴 소설가로 알려져 왔다. 이 소설의 원제는 '어떤 인생(Une vie)'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편향적으로 소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성도 남성도 귀부인이나 왕도 하녀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일생 이야기'임을 환기해야 한다. 잔느라는 여성의 삶과 사랑이야기를 작가의 고향인 노르망디 해안 포구 에트르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이곳은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하여 즐겨 그린 코끼리 코 형상의 해안 절벽으로도 유명하다. 모파상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플로베르



의 영향과 지도 덕분이다. 모파상은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는데, 플로베르는 외삼촌의 친구이자 어머니와도 친분이 깊은 작가였다. 모파상은 플로베르에게 엄격한 문장 수업, 소설 창작 수업을 받았고, 플로베르의 지침에 따라 소설을 썼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감정 교육>과 나란히 놓을 수 있을 만한 장편 소설로 <여자의 일생>, <벨 아미>를 세상에 내놓았고, 300여 편의 짧은 소설을 창작해서 러시아의 안톤 체호프,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와 함께 세계 3대 콩트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기도 하다. 이 짧은 소설들 중에 <의자 고치는 여인>은 플로베르의 <순박한 마음>과 같이 이 마을 저 마을 의자를 고치며 살아가는 의자 수선공 딸을 주인공으로, 한 여자의 첫 마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순정한 사랑 이야기를 작지만 큰 울림으로 그리고 있다.

이번 (재)부산문화회관의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 플로베르와 모파상의 소설과 사랑'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순박한 마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의자 고치는 여인>을 대상으로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자연과 사람, 문학과 예술을 현장감 있게 안내하고 감상할 것이다. 다년 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연구하고 글을 써온 필자의 현장 경험을 통해, 파리에서부터 센 강을 따라 노르망디와 영불해협이 아름다운 마을과 바다, 포구들을 순례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전하고자 한 것들이 지금 이곳의 나에게 무엇이든지,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사랑받는 소설의 힘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소통하고 저마다의 것으로 찾아가고자 한다.

JAMBINAI

IN 부산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부산 콘서트

2021.04.30

2021. 4. 30.(금) 7:3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오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음악적 기량이 뛰어난 부산지역 음악전공자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그동안 차세대 연주자들을 배출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2월 1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지난해 6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4명의 협연자가 이민형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플루트와 트럼펫, 색소폰, 마림바 등 다양한 악기와 여러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협주곡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협연자들의 학구적이면서도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첫 곡으로는 오페라 서곡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중 1악장을 현재 이사벨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윤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윤후는 그동안 tbc 음악콩쿠르 부문 최고점 1위(2019), 에스토니아 탈린 국립음대 음악콩쿠르 1위(2020), 비엔나 청소년 음악콩쿠르 비엔나 대상(2020),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2위(2020)에 입상

한 바 있으며 현재 유나이티드 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동중학교 2학년 백도영은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 중 전형적인 고전주의 스타일의 밝고 당당한 제1악장으로 관객과 만난다. 백도영은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위(2019), 부산관악협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은상(2019), 부산예술고등학교 주최 전국중학생 음악콩쿠르 1위(2019),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중등부 1위(2019-2020)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어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서보준이 폴 크레스톤의 '오케스트라와 마림바를 위한 소협주곡' 중 제3악장을 들려준다. 현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보준은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위(2014), 부산예술고등학교 주최 콩쿠르 1위(2017)에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협연자인 경성대학교 4학년 이현진은 정열적인 리듬이 특징인 스페인 작곡가 페드로 이투랄데의 '페케냐 차르다'를 색소폰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현진은 한국음악협회 관악부문 고등부 1위(2013) 및 전체 3위(2017), 한국음악교육협회 관악부문 1위(2014),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전체 대상(2015)을 수상한 바 있다.

일 시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새봄을 꿈꾸며



- 2021년 새봄의 길목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새봄을 꿈꾸며'가 3월 4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지휘자를 초청,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원 합창지휘 겸임교수, 서울 지휘아카데미 교수, 이상길 코랄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상길. 중앙대학교 작곡과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이상길은 그동안 국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등 유수 합창단을 객원지휘했으며, 2014 세계합창연맹(IFCM) 주최 세계합창심포지엄 공동 집행위원장 및 예술위원장을 맡아 폐막연주회에서 코리안 심포니를 지휘한 바 있다. 이상길은 수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이어 대구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지도력과 음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1부 무대에서는 미국 출신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스칸디나비아

를 중심으로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중인 스티브 도브로그츠(Steve Dobrogosz)의 '미사곡(Mass)'이 연주된다. 이 곡은 지난 1992년 현악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합창단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고전적이면서도 재즈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 창작합창곡으로 꾸며지는 2부 무대에서는 첫 곡으로 2012년 대전시립합창단 제9회 한국창작음악합창제 공모 당선자인 작곡가 양재훈의 '해'를 들려준다. 이 곡은 광복에 대한 염원과 갈망, 절망적 현실에 대한 부정, 광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어서는 영화 '귀향'에 수록된, 위안부 소녀를 위한 위로의 노래 '가시리'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윤해승의 해금 연주와 함께 들려주며, 사람의 여덟 가지 웃음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팔소성'(우효원 곡)이 이어진다.

2부 마지막 무대는 작곡가 우효원의 대표 작품인 '애 대한민국'으로, 동서양의 대표적 타악기인 모듬북과 팀파니, 두 대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되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작품이다. 협연자인 퍼쿠션니스트 고석진은 현재 (재)서울예술단 단원이자 고석진퍼커션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이수자로,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고성오광대 탈놀이로 단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 시 3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2021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

공존, 시간을 열다

3. 2^화 ~ 17^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은빛샘홀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세계적인 음악축제가 열리는 문화도시 부산을 꿈꾸며 아주 특별한 클래식 성찬을 선사하는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BCMF; Busan Classic Music Festival)가 3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클래식음악제는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넘어 부산이 세계 음악계를 향한 출항지임을 선언하는 무대로, 세계 주요 클래식 콘서트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부산 출신 지휘자 오충근과 21세기 클래식 한류를 리드하는 연주자들이 2021년 희망의 마음을 담아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선물을 전한다. 특히 지난 1월, 2021년 시작과 더불어 부산의 새로운 음악축제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3월로 개막이 미뤄진 바 있다.

3월 2일(화) 오후 7:30 금빛누리홀

조성현·한수진 & BCMF오케스트라

부산클래식음악제의 역사적인 개막공연은 부산클래식음악제오케스트라(이하 BCMFO)가 들려주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1악장이 장식한다. 오충근 예술감독은 2021년 모차르트 서거 230주년을 기념하며 교향곡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전개를 자랑하는 이 곡을 음악제 전체의 서곡으로 선정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플루티스트 조성현이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플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현은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을 역임했으며, 최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역대 최연소 조교수로 임명되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유튜브 스타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지난 2001년 폴란드 비에니엥스키 국제콩쿠르에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참가하여 한국인 최초 2위 수상을 물론, 음악평론가상과 폴란드 국영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한수진은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협연한다.

3월 5일(금) 오후 7:30 은빛샘홀

하프시스와 BCMF목관5중주

음악제 두 번째 무대에서는 하프시스트 황세희, 황리하의 '하프시스'와 BCMF목관5중주가 출연, 천상의 소리 하프와 목관악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BCMF목관5중주는 대한민국 대표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2019 IDRS 콩쿠르 1위 입상의 오보이스트 노지연, EOPO 클라리넷 수석 백동훈, KBS교향악단 바순 수석 박준태, 인천시립교향악단 호른 수석 주홍진 등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됐으며, 환상적인 호흡으로 목관앙상블 특유의 매력을 전해준다.

3월 6일(토) 오후 5:00 은빛샘홀

4첼로·송영훈과 친구들

이번 무대는 인간의 음성과 가장 닮은 악기 '첼로'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으로, 최정상의 첼리스트 송영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심준호,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세미파이널리스트



오충근(예술감독)

조성현(플루트)

한수진(바이올린)

심준호(첼로)

백동훈(클라리넷)

김재원(바이올린)

김대연,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국제콩쿠르 1위 수상의 이경준 등 첼리스트 4인의 매력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3월 12일(금) 오후 7:30 은빛샘홀

김재원 & 윤아인 듀오

3월 12일에는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사상 최초 최연소 한국인 제2악장으로 선임되어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과 엘리스 바르살라제로부터 러시아 피아니즘을 전수받은 유튜브 스타 피아니스트 윤아인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 출신의 김재원은 2017년 소피아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2위, 2017년 브람스 국제콩쿠르 바딤 레핀 특별상, 2015년 엘리스 엘리노어 웬필드국제콩쿠르 입상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원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악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아인은 2015년 불가리아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제콩쿠르 1등, 2008년 러시아 이굴노프 청소년콩쿠르 1등, 2006년 뉴욕 국제바흐콩쿠르 1등상을 수상했다.

3월 13일(토) 오후 5:00 은빛샘홀

부산피아노트리오와 스트링아데소

부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연주자들의 앙상블 무대로, 국내 최장수 앙상블인 부산피아노트리오와 부산 실내악의 현세대를 대표하는 스트링 아데소가 무대에 선다. 지난 1962년 부산의 1세대 음악가들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피아노트리오는 현

재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과 피아니스트 권준(고신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로 세대교체가 되어 음악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3월 16일(화) 오후 7:30 은빛샘홀

EOP0앙상블

해외에서 활약중인 부산 출신의 연주자, 해외 아티스트, 그리고 부산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유라시아오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EOP0) 단원들의 앙상블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거장들이 들려주는 탄탄한 앙상블을 만끽할 수 있다.

•연주 백동훈(클라리넷), 임재홍, 김재원(바이올린), 이승원(비올라), 심준호(첼로), 윤아인(피아노), 조용우(더블베이스)

3월 17일(수) 오후 7:30 금빛누리홀

심준호 & 부산신포니에타

이번 부산클래식음악제 폐막공연의 주인공은 현존하는 부산의 실내악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부산신포니에타(리더 김영희 전 부산대학교 교수).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는 부산신포니에타의 100번째 연주회로, 2010년 쥘레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으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부상한 젊은 첼리스트 심준호와 호흡을 맞춘다. 심준호는 그동안 솔리스트로뿐만 아니라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평단과 관객 모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노래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1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 박진홍 음악평론가

2021년 1월 14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벌써 일년 여 동안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삶의 변화가 없는 시기, 음악계 역시 1월의 언 땅 만큼 잔뜩 경직되어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많은 관객들과 함께했던 송년음악회도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겨 새해를 맞이하는 음악회로 대극장을 찾는 것이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어 객석에서는 함께 간 일행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서로 허리를 숙여 거리를 좁혀야 했다. 무대 위도 마찬가지로 연주의 효과를 내면서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 현악기는 연주자 수를 줄였고, 관악기 역시 1관 편성으로 구성되었다. 관악기 주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지휘자도 검은 마스크를 썼는데, 불과 몇 달 전과는 달리 이제 마스크를 쓴 연주자를 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2021년, 부산시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곡은 라벨의 ‘볼레로’였다. 일반 관현악곡에 비해서도 큰 편성으로 평소 관현악곡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색소폰도 3대가 필요하며 호른의 경우 4대가 사용된다. 하지만 1관 편성으로 편곡된 이날 연주에서는 웅장함 보다 각 악기의 음색과 멜로디의 흐름, 조금씩 성장하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돋보였다. 스네어 드럼에서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등의 목관악기, 이어서 호른, 트럼펫, 트롬본의 금관으로 이어지는 멜로디의 흐름을 즐기는 데는 원곡에 비해 손색이 없



었다. 특히 관악기들의 부드럽고 깨끗한 음색과 안정적인 음정이 자연스러운 가락선을 온전하게 전해 주었다.

최수열 지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자니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지휘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지휘자 역시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며 즐길 뿐이었다. 현악기군이 모두 가세하여 사운드가 커졌음에도 움직임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마치 힘들어 조절하려 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맡기라는 듯. 그리고 엔딩. 강렬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두 팔을 돌려 악보의 마지막 겹세로줄을 그려 넣었다.

두 번째 곡으로 피아니스트 이경숙, 김규연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 연주되었다. 1악장, 모차르트 특유의 가볍고 경쾌한 서주가 흐르고 잠시 후, 생기 넘치는 터치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다. 템포와 리드미컬한 리듬은 김규연 교수가,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은 이경숙 교수가 주도하였다.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밀고 당기고 모으고 풀어주는 호흡이 잘 맞아 두 피아노를 비교하며 듣는 즐거움이 좋았다. 아늑하고 편안한 2악장은 봄바람 같은 피아노 음색이 인상적이었다. 반복되는 트릴과 선율의 흐름이 새싹이 움트는 초봄을 떠오르게 했다. 3악장에서도 두 피아니스트는 민첩하게 선율을 주고받으며 리듬과 밸런스를 놓치지 않았다. 부산시향은 인상적인 색채보다는 보편적인 흐름을 연주의 중심으로 잡고 자유로운 피아노의 선율을 적당한 거리에서 잘 받쳐 주었다.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유럽의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에 심취했던 작곡가가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모델로 하여 창작하였다. 그래서 러시아풍의 향토색 보다는 유럽풍의 우아함과 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악기 군이 주는 풍부한 음색이 특징적이다. 1악장에서는 파트별로 전달되는 선율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특별히 몰입도가 높았다. 밸런스나 템포, 다이내믹에 있어서 연결부를 매우 세밀하게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효과였다. 2악장에서는 세레나데가 가진 이미지인 우아함과 설레임을 왈츠의 경쾌함과 잘 어우러지게 연주하였는데, 특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안정감을 주었다. 3악장에서는 극적인 표현을 이끌어 가는 바이올린보다는



부드럽게 노래하는 비올라, 그리고 어느덧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첼로의 무심한 듯한 음색이 마음에 와 닿았다. 3악장의 고요함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시작한 4악장에서는 서정적이고 담백하게 노래했다. 따스한 햇살이 추운 겨울의 언 땅을 녹이고 봄을 불러 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세레나데 연주였다.

앵콜 연주에 앞서, 최수열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송년음악회가 취소되어 하지 못했던 퇴임 연주자 세 명에 대한 짧은 인사와 함께 감사패 증정의 시간이었다. 이어서 무대를 떠나는 연주자들에게 헌사한 곡은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제9곡 '님로드'였다. 수수께끼 변주곡은 엘가가 자신의 지인들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 중 님로드는 엘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음악 출판업자 아우구스트 예거를 표현한 음악으로, 고결하고 헌신적인 친구의 모습이 음악으로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부산시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음악을 선사해 왔던 퇴임 연주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음악이었다. 오랜 세월 부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애썼던 연주자들이 마지막 무대 위에서 후배들의 연주를 들으며 감회에 젖는 모습이 몽클한 감동으로 밀려왔다. 그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로 멋진 무대를 선사해 준 유종석(오보에), 김영희(바이올린), 우윤희(바이올린), 세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년음악회는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연주는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 좋은 영양제가 될 것이다. 2021년 부담 없이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서 기분 좋은 휴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문화회관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해옥 010-3859-9822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솔로 및 듀오, 앙상블 무대를 가져온 피아니스트 김해옥 독주회.

신라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해옥은 1995년 귀국 후 그동안 9차례 독주회를 통해 독일 낭만작곡가의 작품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심도있게 연주해왔으며, 자연과 회화적 영감을 주는 음악세계를 펼쳐왔다.

김해옥은 현재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알베니스/여행의 추억 중 제1번, 6번, 7번

알베니스/이베리아 모음곡 중 'El Albaicin', 'Triana'

마누엘 데 파야/베티카 환상곡 등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III 춤 훨훨날다

일 시 | 2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850-3261, asp.bwc.ac.kr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합동무대로 마련되는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세 번째 무대 '춤, 훨훨날다'.

이번 무대는 매년 춤아카데미의 정체성 확립과 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춤예술을 통한 삶의 활력을 전한다.

- 연출, 예술감독/김해성(학과장)
- 안무, 출연/김옥련, 김한동, 김선영, 서덕구, 이연주, 김지현, 김유진 외
- 객원출연/부산고분도리걸립패

고블린파티 '옛날 옛적에'

일 시 | 2월 7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문 의 | 고블린파티 010-8843-0248



컨템포러리 댄스를 기반으로 관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되 관객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현대무용단 고블린파티의 창작무대.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대에도 남아 있는

것, 또는 그에 반해 오늘날 탄생되었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창작한 무대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한 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1부 '원(Cirde)'은 빛소리친구들 무용단이 휠체어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으로, 휠체어가 없던 시절 신체적 장애를 가졌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2부에서는 오늘날 과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소품들이 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댄스필름 '옛날 옛적에'를 상영하며, 3부에서는 전통 한국무용 공연을 관객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색다르게 느껴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된 고블린 파티의 대표작 '옛날 옛적에'를 무대에 올린다.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2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카리스마 넘치는 건반 위의 대가로 정평이 나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독주회.

세계적 권위의 부조니 콩쿠르 2위 및 현대곡 해석 특별상, 비오티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2위 및 2개의 특별상, 호

세 이투르비 콩쿠르 3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알렉세이 레베데프는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리사이틀, 협연, 실내악 공연 등을 통해 강렬하고 인상 깊은 연주로 청중들과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알렉세이 레베데프는 2012년부터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라베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2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그라베앙상블 612-9764, 010-9340-9521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그라베앙상블 창단연주회.

현악 뿐 아니라 관현악, 건반악기 등 다채로운 조합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클래식이 '따분하고 지루한 음악'이 아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음악'임을 알고자 창단한 그라베앙상블은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팀명인 '그라베(Grave)'는 음악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지시어 중 '장중하고 느리게'라는 뜻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423

모차르트/플루트사중주 K.285

쿨라우/피아노와 첼로, 플루트를 위한 대삼중주 작품 119

슈만/피아노사중주 작품 47

제16회 최낙주 플루트독주회

일 시 |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최낙주 010-4536-235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낙주는 대학 재학시절 첫 독주회를 가졌으며 독일

Eurasia 문화재단 초청으로 유학 당시 3차례 초청독주회와 졸업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최낙주는 귀국 후에는 대구, 부산에서 귀국독주회(2004)를 시작으로 매년 독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체코 아나체 챔버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아울로스, 서울아트플룻, 베네스토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듀오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장효진

부산시민회관

2020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박찬 010-7315-7352

부산, 경남지역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20년 무대.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70여 명의 성악가들이 한 무대에 서았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이자 현재 울산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는 지휘자 구천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 합창곡, 창작 합창곡은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가요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우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윤민화, 정경아
- 특별출연/최소연(소프라노), 최승희(피아노)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새봄을 꿈꾸며

일 시 | 3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2021년 새봄의 길목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새봄을 꿈꾸며'.

특히 이번 무대는 현재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지휘자를 초청하는 무대로, 수원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원 합창지휘 겸임교수, 서울 지휘아카데미 교수, 이상길 코랄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상길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 지휘/이상길 • 퍼커션/고석진
- 해금/윤해승(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2021 미술대학 예비작가 지원전시
ARTI START

일 시 | 2월 5일(금)~21일(일) 전시장
※KT&G상상마당 부산, BNK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동시 개최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35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8개 대학 미술학과 예비졸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2021 미술대학 예비작가 지원전시'.

(재)부산문화회관, KT&G상상마당 부산이 주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만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예비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부울경 8개 대학 미술학과 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예비 졸업생 74명의 100여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KT&G상상마당 부산, BNK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등 4곳의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3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공동 3위로 입상하며, 세계 및 대한민국 음악계를 놀라게 했던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데뷔 이후 처음 갖는 듀오 리사이틀.

10대 때 이미 피아노 영재로 유명했던 임동민, 임동혁은 지난 2005년 세계적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두 형제가 2위 없는 공동 3위에 오르면서 1927년 콩쿠르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이자 최초의 형제 입상자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쇼팽 콩쿠르 이후 두 형제는 늘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으며 이후 나란히 쇼

팽 앨범을 출판하기도 했다. 주로 낭만 쪽 레퍼토리를 선보인 것도 비슷하며, 둘 다 좋아하는 작곡가로 쇼팽과 슈베르트를 꼽는 것도 닮았다. 이렇듯 닮은 듯 다른 네 살 차이의 두 형제는 어느덧 젊은 거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아티스트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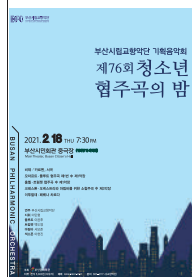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 곡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인데, 두 사람 모두 슈베르트 음악 해석에 뛰어나고 러시아 정통 피아니즘을 계승한 만큼 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네 손을 위한 환상곡 D.940
라흐마니노프/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 17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음악적 기량이 뛰어난 부산지역 음악전공자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그동안 차세대 연주자들을 배출해 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이윤후(플루트, 이사벨중 1학년), 백도영(트럼펫, 해동중 2학년), 서보준(마림바, 부산예고 3학년), 이현진(색소폰, 경성대 4학년)이 이민형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서곡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
훔멜/트럼펫협주곡 중 제1악장
폴 크레스톤/오케스트라와 마림바를 위한 소협주곡 중 제3악장
페드로 이투랄데/페케냐 차르다

음악

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3일(729회) 김연화 바순 독주회

뉴월드 오케스트라, KT 챔버 오케스트라, 연세대학교 니에타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순리스트 김연화 독주회.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함부르크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연화는 귀국 후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여민락 콘서트, 통영국제음악제 TIMF 앙상블, 홍콩 뉴 뮤직 앙상블, 성공회 정오음악회 독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앙리 뒤티외/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사라반데 코르테게
생상/바순 소나타 사장조 작품 168
몰라기/플루트와 바순을 위한 콘체르탄토 등
• 플루트/오병철 • 피아노/심관섭



10일(730회) 소프라노 김선미 독창회

청아한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을 겸비한 소프라노 김선미 독창회.

부산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에센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만점 졸업한 김선미는 독일 유학시절 막데부르크 오페라극장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연주경험을 쌓은 후 오페라 '사랑의 묘약' 주역으로 출연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선미는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성악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페라 가수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류신열



17일(731회) 앙상블 클라온 정기연주회 '감각(感刻)'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독특한 문화-예술 공연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앙상블 클라온의 무대.

독일어로 각각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뜻하는 'Klarinette'와 'Klavier'의 'Kla'와 순우리말로 '즐거움'을 의미하는 '라온'을 조합하여 만든 이름인

'클라온'은 클라리넷과 피아노 구성의 팀으로, 지난 2019년 창단 후 수차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박다은 • 클라리넷/이환석
- 퍼쿠션/김영민
- 기획 및 해설/권경미



24일(732회) 소프라노 김유진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김유진 독창회.

김유진은 부산꽃꽃축제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 벅스코 오디오토리움 개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 오페라 주역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레날도 안/클로리스에게, 봄 슈트라우스/4개의 마지막 노래
앙드레 프레비/세 개의 디킨스 노래
이영조/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랑 등
• 피아노/심하정

제15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오페레타 박쥐 갈라콘서트

일 시 | 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15번째 정기연주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지난 2012년 3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4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왔으며, 우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해외 연주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 성악 연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답고 흥겨운 왈츠와 폴카 리듬의 음악,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사회풍자를 통해 경제위기가 닥친 19세기 후반의 빈 상류사회의 이면을 잘 드러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최고작 '박쥐'를 갈라콘서트로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정태미 • 음악감독/이소영
- 출연/장은영, 이현정, 권미현, 이지은, 박소연, 시영민, 김바위, 윤오건, 박상진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토요일신명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13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상설무대.

6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승무/살풀이춤, 판소리, 대금 가야금중주 '대바람소리'(이상규 곡), 버구춤/소고춤, 설장구놀이

20일 프로그램

현악취타, 작법무, 가사, 산조춤, 창작성악 '제비노정기'(황호준 곡), 고성허튼춤/수영양류 '말뚝이춤'

27일 프로그램

대금독주 '청성곡', 아박무/박집무, 판소리, 진쇠춤, 거문고3중주 '바람의 길'(박경훈 곡), 웃다리판굿

제24회 짜장콘서트

일 시 | 2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사전예약(관객 2명 제한, 남녀커플 우대)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이색 콘서트 '짜장콘서트' 2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 프로무지카 멤버인 피아니스트 정은희, 바이올리니스트 이소정, 첼리스트 이강수와 살타첼로에 이

어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타르티니 '악마의 트릴'과 생상스 '저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들려준다.

한편 짜장콘서트는 사전예약제로 단 2명의 관객으로 제한하며, 이날 참여자에게는 짜장면 시식권 2매가 증정된다.

- 진행/이진이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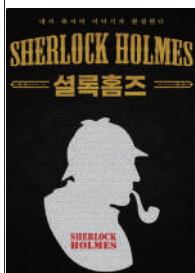
연극 '셜록홈즈'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2021년 2월 14일(일)
 금요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목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화, 소설,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는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을 무대화한 연극 '셜록홈즈'.

어느날 셜록홈즈에게 '벌스톤 살인사건, 조작되었다'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암호의뢰서가 도착하고 홈즈와 왓슨은 사건종료까지 60시간밖에 채 남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벌스톤 영주관으로 들어간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단서들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홈즈는 인간과 진실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탄탄한 스토리와 치밀한 연출, 수준급 무대장치로 관객들을 생생한 사건현장 속으로 초대한다.

영화

제6회 관객영화제
관객의 얼굴

일 시 | 2월 1일(월)~6일(토) 오후 7:00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제)
 문 의 | 관객영화제 사무국 465-1895



우리 곁에서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관객프로 그래머들과의 만남 '제6회 관객영화제'. 영상제작의 꿈을 키워온 청소년 신채은을 비롯해 주유신, 김유성, 주경업, 권현준, 김금옥 등 6명의 관객프로 그래머가 선정한 관객의

마음을 담은 6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상영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관객과의 토크 시간이 마련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1일(월) 러브레터
 2일(화) 눈길
 3일(수)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4일(목) 마부
 5일(금) 내가 사는 세상
 6일(토) 안티고네

행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롯데백화점문화센터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주요 프로그램

드보르작 '신세계교향곡'
 린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여행'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5번'
 베토벤 '코랄판타지', 비발디 미사곡 '글로리아', 브람스 '독일 레퀴엠', '향수', '남촌', '고잉홈' 등 고향 주제 세계합창곡, 쇼팽 '녹턴 2번'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1번' 등

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문자예약필수, 논어아카데미, 목요일의 브런치는 무료)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월) 오후 7:00 작은 생명의 시인,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의 하이쿠 미학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일(화) 오후 7:00 토크 콘서트 '기타로 배우는 달콤한 인생'
 • 강사/박기철(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4일(목) 오전 11:00 인디영화와 함께하는 하루 '단편영화, 수박, 부자(父子), 어떤 오후, 하루'
 • 진행/진선협(시네필)
 15일(월) 오후 7:00 감동과 공감(III) 문학과 음악 '신곡과 파우스트의 음악적 형상화'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청도 문화공간 Raum-Y 대표)
 16일(화), 23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6일(화) 오후 7:00 코로나 시대 대안 찾기 '재난의 정치경제학'
 • 강사/김해창(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18일(목) 오전 11:00 김비주&김우호의 詩 토크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김경주 著, 문학과 지성사)'
 22일(월) 오후 7:00 리브 김의 철학 이야기 '인간,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23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 '재즈, 황혼에 지다'
 • 강사/이기영(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25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우주호의 부산학 '부산을 말한다, 부산의 역사와 지리 탐사'
 • 강사/우주호(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제160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회
 010-6367-0149

2월 오페라바움 영상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2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

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5일(금) R.슈트라우스 '카프리치오'
 12일(금)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다른 버전)
 19일(금) R.슈트라우스 '다나에의 사랑'
 26일(금) R.슈트라우스 '아라벨라'

전시

**영광도서 주최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에서 찾은 삶의 철학**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2020 제21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 음악감상회로, 지난해 12월부터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열리고 있다.

프로그램

2일(753회) 평균(平均)과 균형(均衡)의 음악_바하 이야기

9일(754회) 평등(平等)과 자유(自由)의 음악_베토벤 이야기

16일(755회) 보편성(普遍性)과 개별성(個性)의 음악_브람스 이야기

23일(756회) 이달의 책임기 '레너드 번스타인: 정치와 음악 사이에서 길을 잃다 (배리 셀즈 지음, 함규진 옮김, 심산)'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상흔을 넘어 The Scar**

일 시 | 2020년 9월 25일(금)~2021년 2월 2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및 로비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중국개혁과 개방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주진스(朱金石), 90년대 저항적인 예술 운동의 중심이었던 아파트먼트의 송동(宋冬), 인터미디어 감각을 보여주는 류웨이(刘韡)를 통해 중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는 기획전.

**부산박물관 신수유물 소개전
그릇과 꽃가지를 그려 복을 빌다**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2021년 2월 14일(일)

부산박물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의 고동기(古銅器: 고대 제사에 쓰이던 청동으로 만든 제기)나 진귀한 도자기에 꽃가지, 과일, 채소 등을 걸들인 일종의 정물화가 그려진 10폭 병풍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를 소개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빌 비올라, 조우**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2021년 4월 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이우환공간 1층 제3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이우환 작가와 맥락을 함께하며 미술사 중심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 부산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에서 소개하는 2019 연례 기획 프로젝트 '이우환과 그 친구들' 두 번째 작가전 '빌 비올라, 조우'. 이우환 작가와 국제적 명성을 함께하며,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의 1970년대 초기 주요작부터 최근의 대규모 설치작업까지 총 16점이 선보인다.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5주년 기념전
송봉채展 '내 인생의 나무'**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2021년 2월 17일(수)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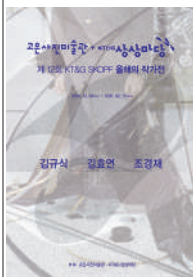
독보적인 입체회화의 장르를 개척한 송봉채 작가 작품전 '내 인생의 나무'.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제12회 KT&G SKOPT 올해의작가전
-김규식, 김효연, 조경재**

일 시 | 2020년 12월 5일(토)~2021년 2월 1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한국사진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고은사진미술관과 KT&G 상상마당이 미래의 한국 사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작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제 12회 KT&G SKOPT 올해

의 작가전.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후 그동안 사진의 전통적 가치와 지속적인 실험정신을 겸비한 신진 사진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전시에서는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에서 최종 선정된 김규식, 김효연, 조경재 작가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국립해양박물관 2020 기획전시
불교의바닷길·바다를 통한 문화교류**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2021년 3월 1일(월)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 무료(온라인 예약 후 관람)

문 의 | 국립해양박물관 309-1900



바닷길을 이용한 불교문화의 전파에 대해 알아보는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

고대로부터 동아시아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광범위한 유라시아와 문화교류를 했고, 교류된 문화는 융화되고 재해석되어

문명을 풍요롭게 했다. 해상 실크로드는 오늘날까지도 동서양을 잇는 문화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닷길을 이용한 불교문화의 전파에 대한 문헌과 자료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바닷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6회 극지사진 공모전 수상전
극지사진 전시회**

일 시 | 2020년 12월 22일(화)~2021년 2월 14일(일)

부산어촌민속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어촌민속관 550-8882



극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특별전으로, 부산시와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한 '극지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과 극지전문 작가의 초대작품 5점이 선보인다.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기획전
네버랜드 사운드랜드 :
권병준-소리산책**

일 시 | 1월 29일(금)~8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해파랑, 길 위의 바다

신혜경 지음 / 문학수첩 / 184p
1만 4천 원

바다를 옆에 두고 천천히 걷는 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할까.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을 향한 예찬한 시집이 나왔다. 시집 속의 바닷길은 '해파랑길'이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잇는 750km의 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전체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색인 '파랑', '~와 함께'라는 조사 '랑'을 조합한 합성어로 만들어진 예쁜 이름이다.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이다. 시집의 표지에서는 바다의 시원함과 아련함이 느껴진다. 신혜경 시인은 부산에서 해파랑길을 걷기 시작해 고성 통일전망대에 닿기까지 마음에 담은 감상을 시로 노래한다. 시에는 자연을 향한 진심 어린 찬사가 담겨 있다. 시집에는 없지만 '남파랑길'도 있다. '남쪽의 쪽빛바다와 함께 걷는 길'로 역시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 해남의 땅끝 마을까지 연결된 총 90개 구간, 걷기여행길 1,470km다. 우리의 바닷길은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한다. 부산에서 천천히 걸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인의 감성에 젖어보는 것도 좋겠다.



홀로 선 자들의 역사

김동완 지음 / 글항아리 / 404p
1만 9천 800원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전국 35곳 누정의 사진과 글을 담은 기행문. 저자는 역사기행 전문작가로, 역사 전문 잡지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 동안 전국의 역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조선의 누정, 비경에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텅 빈 건물이거나, 탁월한 자연 경관 속에 말없이 었드려 있는 옛사람의 흔적일 뿐이지만, 누정에는 철학·예술·풍수·건축·지리가 담겨있다. 우리 조상들은 길이 끝나는 곳에 누정을 짓곤 했다. 깎아지른 해안이 절벽이기도 하고, 유유히 흐르는 강변이기도 하다. 누정에 서면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탁 트여 있지만, 은폐된 성격도 품고 있다. 주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들이 이런 곳을 찾아 정자를 지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누정에 앉은 이들은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며 말 못할 사연이나 억울한 울분의 심정을 삭이곤 했을 것이다. <홀로 선 자들의 역사>라는 제목에는 정자가 보여주는 정신과 미학을 표현한다. 궁궐과 관청을 떠나 홀로이기를 청한 자가 지은 집이다. 긴 세월을 이겨내고 홀로 남아 서 있는 누정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자연을 만나보는 책이다.



첨단X유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획 지음
동아시아 / 392p / 1만 2천 원

유산과 첨단은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일까. 역사 속의 전통유산과 기술, 역사와 과학 간의 연결고리를 읽어내어 역사와 과학을 꿰는 교차 상상력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전통 유산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욕망, 이해관계, 역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담겨 있다. 그 첨단기술 속에는 공학 및 과학자들이 발명해낸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욕구와 시대의 필요가 들어 있다. '철기'를 예로 들어보자. 조선시대의 사인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20년 이상 전통 제철법과 도검 제조법을 복원하고 있는 이은철 도검장은 사인검에서 한국의 전통 제철법을 설명한다. 철강 전문가인 이준호 교수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기가스틸을 경유하여 한국이 만들어낸 차세대 제철법을 나란히 설명한다. 이 책을 위해 고려대학교 인문대학과 공과대학 교수진이 박물관에 모였다. 학예사와 전통기술 복원자를 비롯한 문화유산 현장 전문가들도 합세했다. '첨단'과 '유산'은 거리가 먼 대척점에 서있지만, 사실은 오래 한 실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 과거-현재, 유산-첨단, 인문-공학이라는 이분법의 구분을 넘어서 새로운 접속을 보여준다.



공연장의 플레이메이커 *Playmaker* 전략기획팀

김상윤 (재)부산문화회관 전략기획팀 주임

몸풀기

Warming up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유엔공원을 걸어 출근하는 시간은 회사에서의 하루를 준비하는 몸풀기 시간이다. 신선한 공기와 푸릇한 나무의 생기를 느낄 새도 없이 어느새 머릿속은 하루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가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전술타임

Tactical time

출근하며 몸도 풀었으니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기 전 전술지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축구에서 '감독'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총괄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주간회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전체적인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이 지시사항을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잘 정리하여 각 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전략기획팀이 하고 있다. 가끔 해당부서를 잘못 설정하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작성할 때도(?) 있지만 대표님이 너그럽게 손수 수정해 주신다.

전반전

1st half

자, 이제 경기에 출전하기 전 '감독'님한테 전술 지시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필드 위로 뛰어 나가 업무를 하려는 찰나, 갑자기 '심판'이 나를 불러 세운다. <○○의원 요구자료>가 문서 대기함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접수하지 않으면 레드카드라도 줄 기세로 말이다. 내용을 보니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란다. 그 순간 나는 공을 갖고 뛰지 못하고 심판이랑 실랑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심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우리 전략기획팀의 일이다. 부산시 출연기관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심판'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이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부(부산시)와 입법부(시의회)는 우리 회사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심판'을 대상으로 '요구자료제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조례와 규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 시민과 회사 구성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휴식시간

Half time

전반전에 '심판'이랑 실랑이 한다고 뛰지도 못했는데 점심시간이라니! 그래도 동료들이랑 점심식사도 하고 팀의 멘토(?!!) 대리님이 "기획 마인드를 가져라", "일에 전복되지 말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언을 제조해 준다. 수다 떨며 농담 따먹기도 하지만 나름 생산적인 점심&휴식시간을 보낸다.

후반전

2nd half

이제 후반전 킥오프 휘슬이 울렸다. 심판을 설득해 놓았으니 자유롭게 공을 가지고 패스도 하고, 슈팅도 하며 가진 기량을 마음껏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 있어 모든 역량을 퍼부어야 하는 업무가 바로 '경영평가' 업무이다.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받는 일이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득점 순서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그 등급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보너스!)이 정해진다. 그리고 대외적인 인지도를 크게 좌우한다. 그만큼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리고 기관 전체의 실적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담당자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협업이 중요한 일이다.

연초인 지금은 향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 부서와 협의하여 2021년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2020년 실적을 올려 평가받기 때문에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거쳐 300페이지에 달하는 평가보고서가 탄생한다. 그리고 4월에는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8~9월에는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그 후에는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내년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 리그 우승 트

로피를 들어 올리듯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종료휘슬

Final whistle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덧 퇴근송이 울린다. 저녁 6시가 되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공연관람을 위해 늦은 밤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이 밀려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정시퇴근을 위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저녁엔 쉬어야 그 다음 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전략기획팀의 역할

Strategic Planning

부산문화회관이라는 경기장 위에 선 우리들은 각자의 역할(포지션)이 있다. 사업부서(공연·교육·전시·고객개발·홍보 등)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골을 넣을 수 있어야 하고(공격수), 지원부서(시설·무대·재정 등)는 회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과 재정적 리스크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수비수)을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감독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각 부서들을 이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미드필더)을 하는 것이 전략기획팀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와 우리팀은 상하좌우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관람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짜릿한 승리의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전략기획팀 김상윤 주임

대학생 시절 문학공부를 하다 문화기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인턴과 계약직 경험을 쌓고 부산문화회관에 근무한지도 언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준 직장이며, 퇴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문화기관이며, 서울에서 대학 동기가 놀러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멋진 부산문화회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극장장의 손편지 ②4

예술경영자의 예술 이야기 ③

점점 더 사기(士氣)를 잃어가는 예술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애초의 예술은 장르예술이 아니라 종합예술

음악, 무용, 연극은 가장 오래된 공연예술 장르이기는 하지만 종교행사나 제의, 축제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되어 하나의 장르로 공연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단일 장르로 공연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처럼 엄격하게 분리되어 공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서를 이해시키고 예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극과 음악을 활용한 것도 시장에서의 장르예술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600년 전후에 발레와 오페라가 등장하고 18세기 초부터 클래식 음악이 교회나 궁정에서 나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는 점점 더 독립 장르로 분화해 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모든 사람이 종합예술을 보던 시대와는 달리 장르별로 분화되면서는 각 장르에 따라 보는 그룹도 분화되어 갔다고 봐야 하겠지요.

시장의 예술과 공공의 예술

18세기쯤으로 오면 다시 예술은 시장의 예술과 공공의 예술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예술을 대중예술로, 공공의 예술은 고급예술 혹은 순수예술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전자는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의 기능에 맡겨도 되지만, 후자는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가 오페라입니다. 초기 오페라극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오페라 장르가 각광을 받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오페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오페라극장 건립에 막대한 돈을 후원했던 부자들에게 평생 무료회원권을 주고 자손대대로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까



‘점점 더 어려워진 예술’과
‘점점 더 가치를 따지는 예술’에 이어
예술경영자의 예술이야기 세 번째는
‘점점 더 사기를 잃어가는 예술’을
고민해 봅니다.

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매표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 것도 재정적 어려움에 한몫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결국 공공지원의 규모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오페라가 권력층이나 부자들이 선호하는 장르여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진 공공의 예술

18~19세기 들어서 본격적인 문화팽창의 시기를 맞으면서 예술시장도 급격히 커집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 경제의 부흥, 교통기술의 발달 등이 예술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예술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자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시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엔 국가차원에서 공공예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갖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시장의 예술, 특히 오늘날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라고 불리는 뮤지컬, 대중음악, 영화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재정여건도 좋아졌지만, 공공예술 시장은 전체 규모가 커지고 예술가들의 수는 폭증을 했어도 상대적으로 시장 비중은 여전히 낮고 비영리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술은 '시장실패'의 성격을 갖는 예술로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예술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보편화된 것입니다.

점점 더 사기를 잃어가는 예술

늘 위기 속에 부침해 온 예술이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무슨 큰일만 일어나면 더 위축되어 온 공공의 예술은 요즘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개인도 지갑을 닫아버리곤 하는 예술은 사스나 메르스나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기만 하면 피해를 도맡아 입다가 이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완전 그로기(groggy) 상태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감염력과 감염의 치명성으로 인해 이번에는 아예 예술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예술의, 예술인의 사기는 최저점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해진 지역예술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술이 불가피하게 등장하

면서는 사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공연이나 전시를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되니, 특히 지역의 예술은 더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콘텐츠의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공공예술은 창작이나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나 인프라가 제한적이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설득이 어려워진 예술

예술은 단기간에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교육으로 취향이 형성되어야 소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취향을 형성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점점 더 가치를 따지기도 하고, 이제 사기까지 잃어버린 예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술과 시민, 예술과 소비자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예술경영자의 고민은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술인들은 더 좋은 예술을 보여드리기 위해 애쓰겠지만, 시민여러분께 또 당부드릴 것은 우리 지역의 예술, 우리 이웃의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자랄 때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처럼, 지역의 예술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도, 전 세계의 문화도 풍요롭게 발전할테니까요. 부산문화회관도 지역의 좋은 예술인과 지역고유의 예술을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챔버페스티벌, 오페라와 연극·무용의 자체제작, 지역음악인 협연과 객원연출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양육팬덤'은 소비자 스스로 스타를 키우고 만들어 가는 경향을 말하지만, 여러분도 지역 스타 키우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지요?

좋은 공연 한 편에, 좋은 그림 한 점에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술이 점점 어렵고, 가치를 따지고, 사기를 잃어 가는 가운데서도 좋은 작품은 내 귓가에 울리는 좋은 선율 하나, 내 마음에 다가오는 대사 한마디, 내 기분을 고양시켜 주는 색깔 하나로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좋은 선율이 더 자주 귀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에 울림을 주는 대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내 감각을 확장시켜 주는 선과, 색깔과, 형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더불어 세상을 보는 지혜와 우리 삶의 내공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예술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그런 예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이 가진 에너지와 생기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예술과 예술인들의 사기를 다독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드라마틱 발레'의 거장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내한공연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니나>**

시민 | 대극장 6.22.(화)~6.23.(수) 7:30pm

6.22.(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6.23.(수) <안나 카레니나>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 코로나19로 인해 본 공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nna Karenina.
Photo by Souheil Michael Khoury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문화 | 대극장 7.31.(토)~8.1.(일)

토 2:00pm 5:00pm 일 2:00pm

V 60,000원 R 40,000원 S 2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클

문화 | 중극장 6.15.(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혹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III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22.(금)~10.23.(토)
금 7:30pm 토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광>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부산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다원예술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1.(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감동을 넘어서는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 공연 출연자는 추후 공지합니다.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 학교 단체 관람용 프로그램입니다.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6,000원 S 55,000원 A 44,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All Seats 50,000원(동동이석)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상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사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20.(금)~8.29.(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종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 ~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콥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1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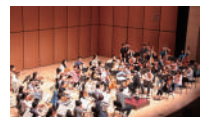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4.1.(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중극장 5.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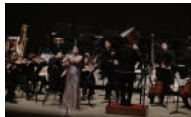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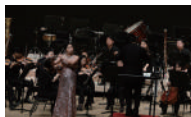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V

시민 | 대극장 10.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시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이광근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과(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출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출극 '동백, 부부'

문화 | 대극장 11.18.(목)~11.19.(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정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

가야금 객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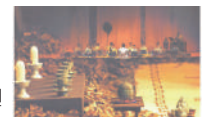
다례연(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방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노래 박성희 | 태평소 김상연 | 가야금 김혜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및 제71회 정기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8월 중(시간, 장소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 일요일 공연 없음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5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노



제66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24.(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제67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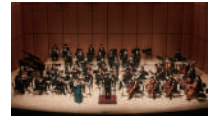


2021 렉처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문화 | 대극장 5.29.(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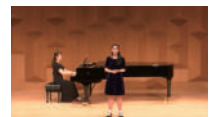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7:30pm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7:30pm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ckage Ticket

2021-22
BSC

프리미엄 패키지(40%)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발레/무용 패키지(30%)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1)

발레/무용 2.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NT Live 패키지

■ 40,000 28,000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Season program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가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패키지티켓 오픈: 2021. 1.19.(화)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티켓 오픈이 2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관계로, 좌석 지정은 패키지 공연의 티켓오픈시 가능합니다. (일반예매 오픈 하루 전, 좌석 선지정)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출구로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셔틀버스

• 저녁시간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낮시간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 1회 운행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8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20일(금)~8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당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I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 오후 7:30, 10일(금)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스승의 삶을 훔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원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해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주)선광 대표이사
 윤영기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숙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 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새봄의 꿈꾸며



객원 지휘 이상길

협연 퍼커션 고석진
해금 윤해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MASS - Steve Dobrogosz
Introitus / Kyrie / Gloria / Credo / Sanctus / Agnus Dei

Spiritual & Cathedral Music
O Salutaris Hostia
Ubi Caritas
Ride On King Jesus

한국의 소리
해
가시리
필소성

아! 대한민국 - 우효원
乾(건)/ 坤(곤) / 坎(감) / 離(리)

2021. 3. 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BPO OPEN REHEARSAL CONCERT

2021. **3.10**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브람스 • 이중 협주곡

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102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첼로 정재윤 Jaeyoon Chung, Cello

바이올린 김덕우 Duekwoo Kim,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Beet h o v e n & Br a h m s

2021. **3.12**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거리두기 좌석제)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브람스 • 이중 협주곡

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102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Beethoven •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첼로 정재윤 Jaeyoon Chung, Cello

바이올린 김덕우 Duekwoo Kim,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Eyes, Next Wave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초청작 선정 공모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격년제 축제로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본 축제의 초청작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부산문화회관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을 발굴하여 자체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신진 스타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유망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축제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모내용

- 공 모 명 :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초청작 선정
 - ※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축제
 - ※ 축제일정 : 2021년 8월 13(금) ~ 8월 24(화)
- 공모부문 :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공연예술분야 전 장르에 걸쳐 실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작품

연극 : 연극, 아동·청소년극, 뮤지컬 등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비보잉 등
음악 : 국악, 음악극, 오페라, 대중음악(인디), 즉흥음악, 전자음악, 사운드아트 등 단체
다원 :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융복합, 서커스 등
기타 : 마임, 거리극, 신체극, 퍼레이드 등

※ 경합 시 개인보다는 단체 우선

- 선정규모 : 8팀 내외 (예정)
- 신청자격
- 1) 참여예술가의 70%이상이 만39세 이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및 프로젝트
 - ※ 만39세 구분(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 초연, 재연(단체, 작품, 프로젝트 등) 공연예술작품
 - ※ 지역예술단체 및 초연작 우선 선정 (지역단체 70% 선정)
- 지원내용 : 작품초청료(10,000천원~50,000천원), 홍보, 운영지원 등
 - ※ 공연 후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재)부산문화회관 2022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초청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2월 22(월) ~ 2월 28(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ch@bscc.or.kr)
- 문의전화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051-630-5237)

National
Theatre
Live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BY EXPERIENCE | H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리 어 왕

KING LEAR

BY WILLIAM SHAKESPEARE | DIRECTED BY JONATHAN MUNBY

2021. 10. 23.(SAT) 3:00PM



워 호 스

War Horse

2021. 4. 24.(SAT)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2만원 예매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NT Live 패키지(30%) 2편 동시구매시 28,000원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텍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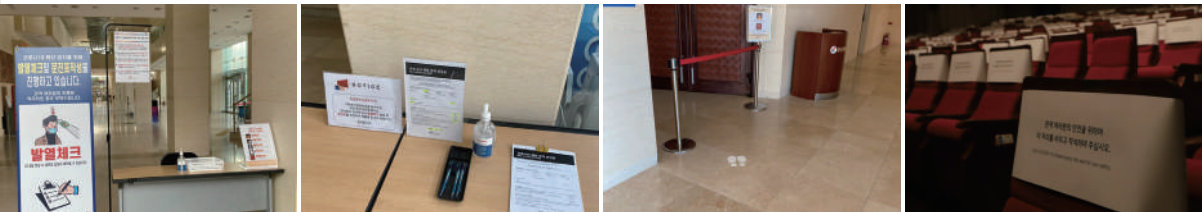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2. 28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 | |
|------------|-----------------|
| ① 612-9566 | ⑪ 070-755-2188 |
| ② 624-9776 | ⑫ 611-3973 |
| ③ 626-7111 | ⑬ 908-1111 |
| ④ 611-4241 | ⑭ 625-9402 |
| ⑤ 626-4448 | ⑮ 626-2292 |
| ⑥ 622-7412 | ⑯ 010-3996-6498 |
| ⑦ 611-3589 | ⑰ 623-0772 |
| ⑧ 628-8009 | ⑱ 628-3832 |
| ⑨ 621-7040 | ⑲ 714-3559 |
| ⑩ 621-5788 | |

Music & Art / etc.

- | |
|----------------|
| ① 868-3311 |
| ② 868-3311 |
| ③ 625-7275 |
| ④ 628-2592 |
| ⑤ 622-1456 |
| ⑥ 621-6669 |
| ⑦ 626-7900 |
| ⑧ 080-337-3370 |
| ⑨ 622-9722 |
| ⑩ 625-8704 |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타워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우 표

받는 사람

이 름

주 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2021

2

FEBRUARY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삶에 플러스가 되는 인문학

BSCC 인문학+콘서트

향연

21.3.26(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21.4.30(금)

어디서 살 것인가?



건축가 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

21.5.28(금)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21.9.24(금)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



공연예술인 김명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00

전석 20,000원

연주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21.7.30(금)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21.10.29(금)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KAIST 교수